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4월 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정보통신정책과장 김정환, 박중수 사무관(2110-4796)	

'11. 3월 IT수출 전년 동월대비 6.2% 증가한 135.0억 달러

– 리비아 사태, 일본 지진 등에도 불구하고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지식경제부는 3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6.2% 증가한 135.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5일 밝혔다. IT수출은 리비아 사태, 일본 지진 등 대외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09년 10월(120억 달러, 0.6% 증가) 이후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고,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375억 달러, 기존 최대: '10. 1분기 334억 달러)을 달성하였다.

품목별로는 휴대폰, 반도체, TV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도체(44.8억 달러, 10.9% 증가)는 시스템반도체 수출 증가와 메모리반도체 단가 회복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휴대폰(21.7억 달러, 6.0% 증가) 수출은 스마트폰(8.0억 달러, 248.7% 증가) 수출 호조로 6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디스플레이 패널(27.0억 달러, △4.8%)은 단가 하락과 EU, 미국 수출 감소로 한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였다.

※ 스마트폰 수출 증가율(%) : ('10.4) 50→(5) 134→(12) 349→ ('11.3) 249, "11개월 연속 세 자릿수 수출 증가"

IT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1년		2010년	
		3월	1분기	3월	1분기
수 출	전체산업	486.0 (30.3)	1,318.1 (30.4)	373.1 (33.8)	1,010.8 (35.8)
	IT산업	135.0 (6.2)	375.1 (9.0)	127.2 (44.8)	344.1 (47.2)
수 입	전체산업	455.0 (27.9)	1,234.1 (25.7)	355.8 (48.7)	981.6 (37.4)
	IT산업	72.2 (11.9)	200.5 (17.8)	64.5 (38.2)	170.3 (34.0)
수 지	전체산업	31.0	84.0	17.3	29.3
	IT산업	62.8	174.5	62.6	173.8

컴퓨터 및 주변기기(6.5억 달러, △6.7%)는 HDD, 모니터 등 주변기기 수출 부진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태블릿PC(1.2억 달러 수출)는 다시 1억 달러 수출을 회복하며, 컴퓨터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 태블릿 PC 수출 추이(억 달러) : ('10.10) 1.3→(11) 3.4→(12) 1.7→('11.1) 1.3→(2) 0.7→(3) 1.2

한편, TV(7.2억 달러, 11.4% 증가) 및 가정용기기(4.5억 달러, 5.4% 증가)는 북미 및 아시아 지역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최근 HDD를 대체할 차세대 저장매체로 주목받는 SSD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한 3,600만 달러로 HDD(6,300만 달러, △57.8%) 수출 부진을 만회하였다.

국가별로는 EU(14.1억 달러, △9.5%), 미국(13.8억 달러, △3.3%), 중남미(7.4억 달러, △9.3%) 수출은 한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반면, 아시아(91.1억 달러, 11.6% 증가), 대양주(0.9억 달러, 6.5% 증가) 등 아태 지역 수출이 IT수출을 견인하였다. 특히, 최대 IT수출국인 중국(홍콩 포함, 63.0억 달러, 9.4% 증가)은 반도체, 패널 등 부품 수출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우리 IT의 중국 수출 비중은 '03년 26.3%에서 이번 달 46.6%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소요 사태와 지진 발생 지역인 중동(4.2억 달러, 29.9% 증가), 일본(6.9억 달러, 12.4% 증가)은 우려와 달리 스마트폰 등 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 추이(%) : (03) 26.3→(07) 35.8→(10) 45.1→('11.1) 44.3→(2) 44.2→(3) 46.6

※ 스마트폰 수출 : (일본) 7300만 달러, '10. 10월 이후 본격 수출, (중동) 7300만 달러, 242% 증가

'11년 3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체	44.8 (10.9)	27.0 (△4.8)	21.7 (6.0)	135.0 (6.2)
중국(홍콩 포함)	24.4 (10.6)	19.5 (11.2)	4.6 (△23.2)	63.0 (9.4)
미국	2.6 (△10.1)	0.2 (△78.2)	5.7 (△3.3)	13.8 (△3.3)
일본	2.6 (10.8)	0.6 (3.3)	1.1 (67.0)	6.9 (12.4)
EU	2.7 (△5.7)	3.5 (△20.0)	2.8 (△6.9)	14.1 (△9.5)

IT수입은 전자부품(39.3억 달러, 6.1% 증가), 휴대폰(6.0억 달러, 69.5% 증가) 등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1.9% 증가한 7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IT수지는 전체 산업 흑자(31.0억 달러)의 2배 가량인 62.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11년 세계 IT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휴대폰+PC+콘텐츠/SW) 등 IT융합제품이 글로벌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융합제품과 이러한 융합제품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중심으로 IT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중동, 일본 등 대외 정세 불안 및 부품 수급 문제는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IT시장 조사기관인 Gartner는 IT융합제품 시장 성장에 따라, '11년 IT시장 전망을 기존 5.1%에서 5.6%로 상향

세계 IT시장 전망 ('11년)

(단위 : %)

구분	IT 전체	통신서비스	기기			SW		
				통신기기	정보기기		패키지SW	IT서비스
1월 전망	5.1	3.4	8.4	9.1	7.5	5.3	7.5	4.6
3월 전망	5.6	3.8	9.4	9.4	9.5	5.6	7.6	5.0
비교	0.5% 상향	0.4% 상향	1.0% 상향	0.3% 상향	2.0% 상향	0.3% 상향	0.1% 상향	0.4% 상향

자료 : Gartner, 2011. 3.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1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 올해 반도체 시장은 업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엔진제어, 내비게이션 등 반도체를 활용한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반도체 시장 성장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IC Insight는 '11.3월에 집계·발표된 1월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월대비 4.5% 하락하는 데 그쳐, 우려와 달리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

※ 반도체 시장은 연말 재고 조정으로 1월 수요는 전월대비 통상적으로 급감하나, 올해 1월은 1990년 이후 가장 양호한 감소율을 기록(1990~2010년 1월 평균 반도체 시장 감소율은 약 17%)

-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 전쟁과 미세 공정 가속화 분야가 핵심 이슈로 부상

※스마트기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모바일기기의 두뇌역할을 하는 모바일 AP 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AP 개발사와 휴대폰 제조사들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양상으로 재편되는 추세

- D램 시장은 '10년 3분기에는 '06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1분기에는 D램 물량은 증가했으나, 단가 하락으로 한 자릿수 감소를 기록할 전망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E		
		1Q	2Q	3Q	4QE	연간	1Q	2Q	연간
반도체	2,289.0	703.1	754.4	797.9	784.7	3,040.1	742.9	765.9	3,138.4
증가율	△11.9%	2.0%	7.3%	5.8%	△1.7%	32.8%	△5.3%	3.1%	3.2%
메모리반도체	441.0	159.2	176.3	181.6	170.3	687.4	160.0	159.7	664.1
증가율	△3.6%	5.0%	10.7%	3.0%	△6.2%	55.7%	△6.0%	△0.2%	△3.4%
시스템반도체	1,848.0	543.8	578.1	616.3	614.4	2,352.6	582.8	606.1	2,476.1
증가율	△13.6%	1.0%	6.3%	6.6%	△0.3%	27.3%	△5.1%	4.0%	5.2%

자료 : iSuppli, 2010.

2) 수출 여건

▶ 일본 지진으로 반도체 및 관련 부품(리드프레임, 웨이퍼 등) 수급 차질이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 대부분의 일본 전자업체 생산 설비는 지진 피해지역과는 격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운송과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

- 국내 반도체 업체의 입장에서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수급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반도체 소재 및 반제품 가격의 상승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반도체용 기판에 사용되는 박동막 시장을 거의 독점해 온 미쓰이금속의 생산라인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반도체용 PCB 가격 상승이 시작(반도체용 PCB는 25%, 패키지는 10% 가격 상승, 전자신문 2011.4.1.)

- 부품 공급 차질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장기화 된다면 글로벌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 일본발 부품 공급 차질이 세계적으로 자동차 및 전자업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글로벌 생산의 약 25%까지로 전망되는 웨이퍼 공급 차질은 세트 업체의 생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현재의 재고 수준으로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바잉파워를 바탕으로 부품 소재 공급에서 유리한 입장이어서 가격 상승에 대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

▶ 3월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D램이 0.90달러(전월대비 1.7% 상승), 낸드플래시가 3.7달러(전월대비 4.8% 상승)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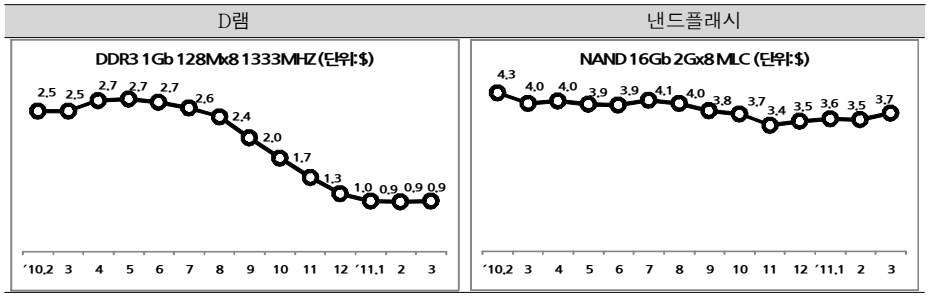
- 지난해 중반 이후 계속되어 온 D램 가격의 빠른 하락 추세는 일 지진이후 진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가격은 상승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 D램 가격은 '1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3.4% 수준의 상승을 기록(고정가 기준)하였으며, 이는 일본 지진에 따른 반도체 소재 부족 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D램 재고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

- 최근, 일본 지진과 중동지역 불안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 지진에 따른 IT부품 차질이 크지 않다면 D램 가격은 예상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 NAND 제품 고정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진에 따른 Toshiba(Sandisk 포함)의 생산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대형 SET 업체가 NAND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가격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자료 : D램eXchange, 2011.3.

▶ 2010년 우리나라 업체들의 점유율은 D램 58.2%, NAND 43.2%로 집계

- '10.4분기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은 D램이 62.6%로 전 분기(60.9%)보다 상승하였으며, 낸드플래시는 42.6%로 전 분기(43.8%)보다 소폭 하락

- 일본 지진에 따른 가격 상승의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은 반사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나,

- 웨이퍼 공급 차질이 장기화 된다면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메모리반도체 국내 업체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D램	2007	2008	2009	2010				
				전체	1Q	2Q	3Q	4Q
세계시장	318.5	244.0	229.7	395.2	95.2	107.2	107.5	85.3
(증감률)	△7.1%	△23.4%	△5.9%	72.1%	164.4%	135.2%	74.7%	−1.4%
국내기업생산	154.2	119.5	125.0	230.0	50.8	60.3	65.4	53.4
(증감률)	△0.4%	△22.5%	4.7%	83.9%	162.0%	132.7%	86.9%	19.5%
점유율	48.4%	49.0%	54.4%	58.2%	53.3%	56.2%	60.9%	62.6%

낸드플래시	2007	2008	2009	2010				
				전체	1Q	2Q	3Q	4Q
세계시장	152.3	131.7	143.7	197.2	45.7	51.2	50.6	49.7
(증감률)	11.6%	△13.5%	9.1%	37.2%	95.8%	61.0%	26.5%	2.3%
국내기업생산	83.0	62.4	64.0	85.1	19.8	22.0	22.2	21.2
(증감률)	3.9%	△24.8%	2.6%	32.9%	81.0%	43.8%	27.4%	3.7%
점유율	54.5%	47.4%	44.6%	43.2%	43.3%	43.0%	43.8%	42.6%

자료 : Gartner, 2011.3.30.

3) 수출 동향

▶ 3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 달러(전년 동월대비 10.9% 증가)로 집계

- 시스템반도체, LED 등 광·개별소자, 반도체 패키징 물량 확대가 반도체 수출 확대를 주도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약 3% 수준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전년 동월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집계
- D램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4.2% 감소하였으며, NAND는 10.9%의 증가를 기록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반도체	40.4 (123.0)	41.8 (97.6)	43.9 (82.6)	43.8 (74.1)	46.2 (70.8)	47.4 (64.9)	47.7 (48.6)	45.6 (32.8)	41.3 (18.1)	42.5 (23.5)	40.9 (23.9)	36.7 (9.5)	44.8 (10.9)
메모리	22.8 (163.9)	24.6 (150.1)	26.1 (127.5)	25.3 (103.2)	26.4 (98.5)	27.9 (90.4)	26.6 (65.8)	24.5 (37.6)	20.3 (4.4)	21.4 (7.2)	21.8 (11.3)	18.9 (△2.2)	23.5 (2.9)
D램	15.1 (204.1)	16.0 (201.3)	17.6 (179.1)	16.7 (141.8)	17.8 (119.6)	18.8 (116.9)	17.5 (86.9)	16.4 (56.1)	12.7 (2.9)	12.6 (△8.9)	11.5 (△16.2)	11.0 (△14.7)	12.9 (△14.2)
낸드	2.4 (81.9)	2.5 (77.9)	2.4 (40.2)	2.4 (48.6)	2.4 (53.7)	2.5 (26.9)	2.2 (4.3)	2.1 (△8.9)	2.2 (11.0)	2.5 (39.9)	2.5 (20.8)	2.2 (8.3)	2.7 (10.9)
시스템 반도체	12.4 (61.5)	12.3 (30.8)	12.9 (22.9)	13.2 (27.0)	14.1 (24.3)	14.2 (23.6)	15.3 (18.4)	15.1 (15.1)	15.6 (25.9)	15.4 (38.5)	13.8 (36.9)	12.2 (16.4)	15.1 (22.2)

▶ (지역별) 주요 지역 중 중국(홍콩 포함, 24.4억 달러, 10.6% 증가), 일본(2.6억 달러, 10.8% 증가) 수출은 증가했으나, 미국(2.6억 달러, 10.1% 감소), EU(2.7억 달러, 5.7% 감소) 등은 감소

-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한 가운데, 대일 수출은 10.8% 증가를 기록하면서 미국 수출액을 추월(대일 수출액 : 2.64억 달러, 대미 수출액 : 2.58억 달러)

2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11년 1분기, LCD 업황 부진에 따른 패널 출하량 감소와 패널 가격 약세, 기대 이하의 중국 춘절 효과 등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 예상

- '10년 9월 이후 IT용 패널 가격은 현금 원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패널 업체들이 가동률을 급격히 낮추면서 안정세로 전환되었지만 상승 시점은 지연되고 있으며 그 상승폭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 '11년 전 세계 PC 판매량이 선진국 경기 회복 둔화와 중국 시장 수요 부진 등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성숙 단계에 진입한 LCD TV 시장 역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당초 '10년 하반기 재고 조정이 이루어져 '11년 1분기 중국 춘절 효과를 예상했으나,
- 기대 이하의 춘절 수요와 전년과 달리 스포츠 이벤트 특수가 없어 TV 패널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 지속

▶ '11년 2분기, 패널 가격 반등 및 출하량 증가로 LCD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

- '11년 2분기 LCD 패널은 △ 중국 노동절 효과, △ TV 신규 모델 출시, △ 낮아진 재고 수준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재고 축적, △ 후발업체들의 생산공정 전환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상기 요인들로 인하여 2분기에는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패널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체들의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패널 가격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익성 개선 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

※ 이에 LCD 업체들은 원가 비중을 낮춘 보급형 LED TV 패널, FPR(Film Pattern Retarder) 3D TV 패널 등의 비중 확대 등 제품 믹스 개선으로 패널 가격 안정세를 대비한 수익성 제고 전략 전개 예상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e		
		1Q	2Q	3Q	4Q	연간	1Q	2Q	연간
LCD 패널	720.1	216.3	229.0	214.3	198.8	858.4	192.5	237.0	1,029.2
증가율	△11.9	115.9	52.1	7.3	△0.8	31.9	△11.0	3.5	19.9
중소형 패널	219.2	53.7	59.5	69.6	73.1	255.9	67.3	75.4	–
증가율	△13.3	30.6	15.5	7.5	18.2	16.7	25.3	26.6	–

주) LCD 패널(9.4인치~82인치), 중소형 패널(0.2인치~10.2인치)
자료 : DisplaySearch, 2011. 2월/4월

2) 수출 여건

▶ 전 세계적인 LCD TV 수요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LED TV의 비중 확대 등은 패널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도 상존

-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의 TV 시장 포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 종료, 신흥 시장의 대형 사이즈 판매 부진, 교체 수요 유발 동기 부재 등으로 TV 판매 부진의 주요 요인

- 이에 따라 세트 업체와 유통 업체들이 보수적인 재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절, 하반기 성수기를 앞두고 재고 비축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중국 춘절은 LCD TV 수요가 지방 도시에서 많이 발생한 반면 노동절, 국경절 등은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급형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고 절대적인 판매량도 춘절에 비해 많음

- 또한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들의 LCD TV 시장 비중 확대 및 성장세가 국내 패널 업체의 실적 개선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대만의 양안 관계 강화 움직임은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만 경제성(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은 AUO 등 대만 패널 제조업체들의 對중국 투자에 대한 투자 제한을 공식적으로 모두 해지('11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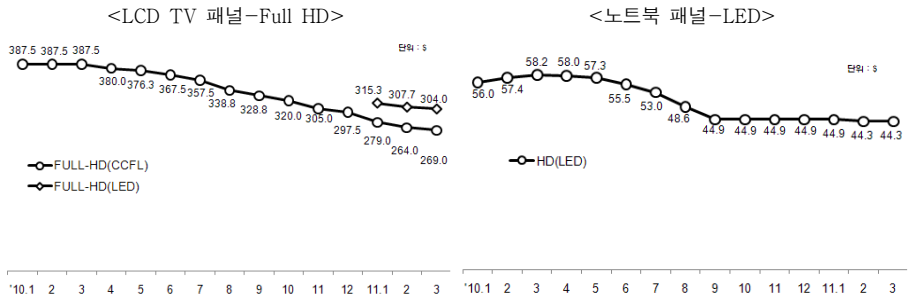
※ 당초 대만은 중국 투자 승인 요건으로 자국보다 1세대 낮은 라인 건설 등의 제약 조건 제시

- 이에 AUO(8.5세대), CMI(8.5세대)는 중국에 생산 공장 건설 허가 신청 혹은 신규 건설 계획을 밝힘

- 대만 경제성은 대만 패널 업체들의 중국 패널 업체 인수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국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모색할 방침

- 중국 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최대 LCD TV 시장의 중심이 북미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중국-대만의 양안 관계 강화는 국내 업체들의 중국 시장 내 지배력 강화, 수출 확대 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디스플레이 가격 동향(평균)



주) LCD TV 패널(32인치~47인치) 평균, 노트북 패널(10.1인치~17.3인치) 평균
자료 : Witsview, 2011.3

▶ 노트북 등 IT 패널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TV 패널 가격은 하락세 지속

- 일본 지진 등에 따른 일부 부품·소재의 공급 조달 불확실성,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신규 모델 출시 지속 등으로 IT 패널은 보합세를 유지

- 반면, 스마트 TV 등 신규 제품 수요의 부진, 유럽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 시장의 TV 수요 부진 지속 등으로 TV 패널 가격은 하락세 지속

- 다만, '10년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패널 업체들이 패널 가격의 하락을 감내하기 어려워 대만 등 경쟁국 업체를 중심으로 가동률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11년 2분기 이후에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특히, 2분기 중국 노동절 수요 등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BMS 도입 확대, 3D TV, 스마트 TV 등에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등을 전개 중이기 때문에 패널 가격 반등을 기대

3) 수출 동향

▶ 3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TV 선진 시장의 수요 둔화 지속, LCD TV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8% 감소한 27.0억 달러

- 특히, 3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6% 감소한 3.2억 달러 기록

- 다만, 전월(22.6억 달러)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볼 때, LED 패널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 노동절 특수에 따른 세트 업체 등의 재고 비축 확대,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 효과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분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홍콩 포함)은 노동절 특수 등을 겨냥한 중국내 세트 업체 등의 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한 19.5억 달러

- 3월 디스플레이 패널 전체 수출 중 2.3%를 차지하는 일본은 지진 등의 여파로 전년 동월대비 3.3%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는 6.6% 감소(0.6억 달러)

- TV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EU(3.6억 달러, △20.0%), 미국(0.2억 달러, △78.2%) 과 이들 지역의 생산 거점인 남미(1.9억 달러, △41.0%), 동유럽(3.4억 달러, △1.9%) 수출도 동반 감소

- 다만, 3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중 각각 13.1%, 12.5%를 차지하고 있는 EU(43.0%) 및 동유럽(52.5%) 등의 수출이 전월대비 증가하고 있어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선진 시장의 수요 및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패널	28.4	28.4	29.1	28.8	31.9	31.9	28.6	28.9	27.3	26.5	25.6	22.6	27.0
(증감율)	(46.0)	(40.2)	(37.5)	(28.2)	(27.5)	(25.2)	(8.9)	(8.7)	(9.5)	(0.8)	(4.0)	(△3.2)	(△4.8)
부분품	3.3	3.7	3.2	3.1	3.5	3.1	2.8	2.7	2.9	2.9	2.7	2.3	3.2
(증감율)	(64.0)	(60.6)	(40.1)	(24.0)	(26.1)	(6.8)	(△6.0)	(4.8)	(15.6)	(7.7)	(△2.2)	(△14.6)	(△3.6)

3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 글로벌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 중국 등 신흥 시장 부상으로 견조한 성장세

- Gartner, SA 등 시장조사기관은 '11년 휴대폰 시장을 10~13%로 상향 수정 전망

※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기존 → 최근, %) : (Gartner) 9.8% → 13.2%, (SA) 10.0 → 10.7

- 특히, 중국 및 유럽의 3G 보급률 확대, 견조한 스마트폰 교체 수요 및 신흥시장 신규 수요가 글로벌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

※ 휴대폰 교체 수요 비중 추이(%, Gartner) : ('08) 62.8→ ('09) 64.1→ ('10) 74.7→ ('11) 77.9

▶ '11년 휴대폰 시장은 1) 노키아와 MS 전략적 제휴, 2) 4G/LTE 단말 시장 본격화, 3) 윈도우폰 7의 성공여부, 4)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 부가기능 차별화, 5)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

- 1) 노키아와 MS 전략적 제휴 : 노키아는 최근 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MS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OS, 앱스토어 등을 통합하고 HW 개발/생산에 주력할 전망

- 2) 4G/LTE 단말 시장 본격화 :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시장의 성장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G/LTE 시장이 본격화될 전망

- 3) 윈도우폰 7의 성공여부 : MS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OS 경쟁력 회복을 위해 윈도우폰7 OS(제조사: 노키아, 삼성, LG, HTC 등)를 지난해 10월 출시하였고, 향후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OS 만큼 성장할지 여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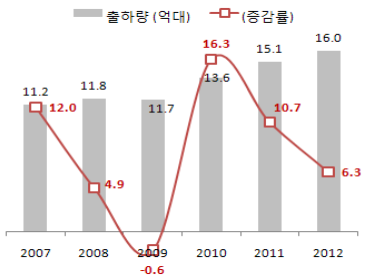
※ 윈도우폰 OS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 : ('08) 11.8% → ('09) 8.7% → ('10.) 4.2%

- 4) NFC 등 부가기능 차별화 : NFC는 인증, 결제뿐 아니라 정보 공유, 획득 등 응용분야가 넓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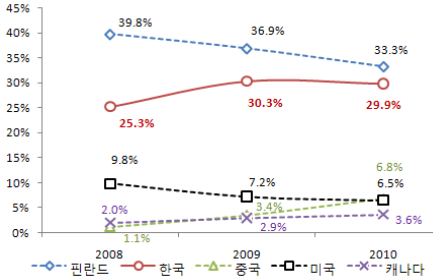
- 5) 단가 하락 : 신흥 시장의 성장과 중국 저가폰 업체의 스마트폰 시장 진출 등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스마트폰 업체 및 중국 저가 업체의 부상으로 1위 노키아(핀란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3%p 이상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9.9%로 세계 2위 위상 유지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전망



휴대폰 세계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 SA, 2011.2

▶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지속

- 우리나라 스마트폰 점유율은 주목할 만한 성장으로 '09년 4.2%, 세계 5위에서 '10.4분기 14.3%로 세계 스마트폰 3위에 근접

※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 추이(%, SA) : ('10. 1Q) 5.4 → (2Q) 6.4 → (3Q) 10.6 → (4Q) 14.3

- 국내업체의 '10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09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11년에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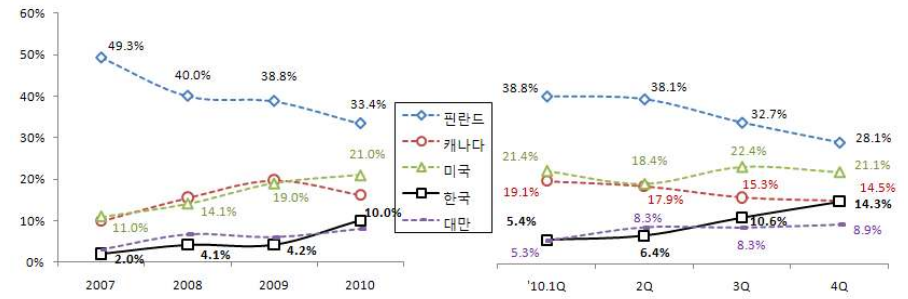
- 삼성전자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 기지를 중심으로 '10년 2.8억 대에서 18% 증가한 3.3억대를 출하할 계획이며,

- 이 중 급성장 중인 스마트폰은 지난해 2,000만대에서 올해 6,000만대 판매하여 세계 TOP 3진입을 목표로 설정

- LG전자는 지난해 보다 20%가량 성장한 1.4억대를 출하할 계획이며, 스마트폰은 3,000만대 가량 출하할 계획

※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출하량(백만 대, SA, 업계) : ('08) 6.3 → ('09) 7.3 → ('10) 30.1 → ('11e) 90 ~ 100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 추이



<연도별> <분기별>

자료 : SA, 2011.2

2) 수출 여건 및 수출 증가 원인

▶ 개선된 스마트폰 경쟁력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부품 수급 경쟁력은 휴대폰 수출에 긍정적 요인

- 국내 업체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Volume 경쟁에서 타 업체에 비해 탄탄한 Supply Chain를 보유하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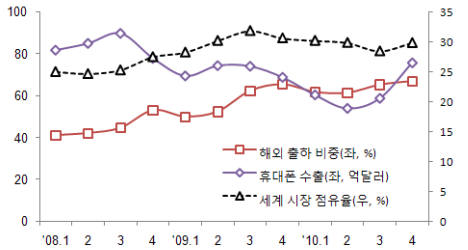
- 스마트폰의 수출 호조에 따른 휴대폰 수출 단가 상승이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

▶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확대로 '해외 생산 후 직수출' 물량이 증가해 휴대폰 수출(통관 기준)은 다소 둔화될 전망

- 해외 출하 비중은 '09년 58%에서 '10년 64%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 발생하나,
- 제품 현지화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 제고, 가격 경쟁력 확보, 글로벌 업체와의 볼륨 경쟁력 확보, 핵심 부품 수출 증가 효과는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휴대폰 수출 단가 및 해외 출하비중/수출/점유율 관계

<휴대폰 세계 시장점유율/해외 출하 비중/수출 추이>



<휴대폰 수출 단가>



3) 수출 동향

▶ 3월 휴대폰 수출은 스마트폰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한 21.7억 달러

- 스마트폰은 248.7% 증가한 8.0억 달러로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
- 국가별 스마트폰 수출은 미국(3.0억 달러, 238% 증가), EU(1.6억 달러, 203.9% 증가) 등 선진 국가와 동유럽(0.2억 달러, 205.3% 증가), 중남미(0.3억 달러, 598.9% 증가), ASEAN(0.4억 달러, 92.1% 증가) 등 신흥 국가 수출이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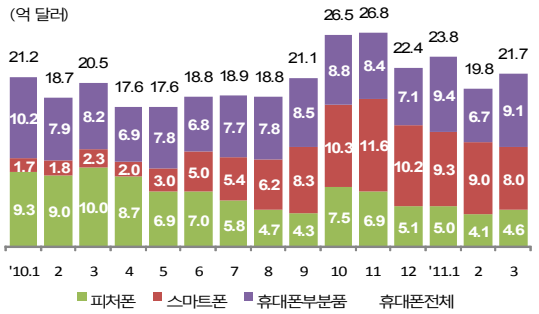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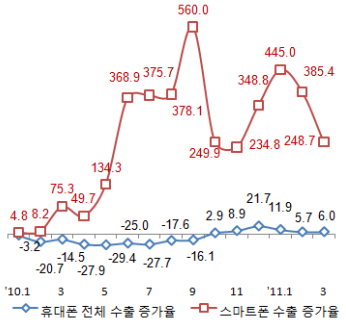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금액	20.5	17.6	17.6	18.8	18.9	18.8	21.1	26.5	26.8	22.4	23.8	19.8	21.7
(증감률)	(△14.5)	(△27.9)	(△29.4)	(△25.0)	(△27.7)	(△17.6)	(△16.1)	(2.9)	(8.9)	(21.7)	(11.9)	(5.7)	(6.0)

휴대폰 및 스마트폰 수출 추이

<휴대폰 품목별 수출 추이>



<휴대폰 전체 및 스마트폰 수출 증가율>



▶ (지역별) 휴대폰 수출 주력 지역인 미국(5.7억 달러, △3.3%), 중국(홍콩 포함, 4.6억 달러, △23.2%), EU(2.8억 달러, △6.9%)은 감소한 반면,

- 일본(1.1억 달러, 67.0% 증가)은 지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수출 호조로 높은 증가세 지속

※ 일본 휴대폰 수출의 64%가 스마트폰

- 중동(0.6억 달러, 14.2% 증가)은 리비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수출 저변 확대로 수출 호조세 지속

※ 스마트폰 수출 : 일본 (0.7억 달러, '10. 10월 이후 본격 수출), 중동 (0.7억 달러, 242% 증가), 아프리카 (930만 달러, 18% 증가)

- 아프리카(3.7억 달러, 132.3% 증가)는 경쟁력 높은 국산 피처폰이 수출을 주도하며 세 자릿수 증가율 시현

4 TV

1) 시장 환경

▶ '11년 세계 평판TV 시장 성장성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 예상

- '11년 세계 평판TV 시장은 ① 선진시장의 수요 확대 지연(시장포화, LED TV 이후 뚜렷한 킬러앱 부재), ② 일본 시장의 소비 심리 하락(에코포인트 제도 종료, 대지진) ③ 신흥시장의 교체 수요 동기 부재 등이 맞물리며 전년대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전망

※ 평판TV 시장 성장률(매출 기준): 2010년 17.6% → 2011년 3%

※ 평판TV 시장 성장률(출하량 기준): 2010년 31.6% → 2011년 12%

▶ LED TV, 평판TV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 할 전망

- '11년에는 LCD TV 가운데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TV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그 동안 LCD TV 시장의 주류를 형성했던 CCFL 방식의 LCD TV 시장을 추월할 전망

※ LCD TV 시장중 LED TV 비중(매출 기준): 2010년 33.3% → 2011년 62.9%

※ LCD TV 가격(42", $) : ('10.8) 939→(9) 898→(10) 871→(11) 904→(12) 844→('11.1) 869→(2) 830→(3) 972

※ LED TV 가격(42", $) : ('10.8) 1,232→(9) 1,229→(10) 1,176→(11) 1,127→(12) 1,085→('11.1) 1,084→(2) 1,020→(3) 997

글로벌 평판TV 시장 전망

구분	매출 기준 (억 달러)		출하량 기준 (만 대)	
	2010	2011	2010	2011
평판TV	1,131.5	1,165.4	21,000.5	23,527
(증감률)	(17.6%)	(3%)	(31.6%)	(12%)
LCD TV	1,001.2	1,038.9	19,155.7	21,692
LCD TV (CCFL)	667.8	385.3	15,162.7	10,838
(증감률)		(△42.3%)		(△28.5%)
LCD TV (LED)	**333.4**	**653.6**	**3,992.9**	**10,854**
(증감률)		**(96.0%)**		**(171.8%)**
PDP TV	130.3	126.5	1,844.7	1,835

<자료> : DisplaySearch, 2011.3.

▶ 3D TV, '11년에 2,164만 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

- DisplaySearch는 '11년 3D TV 시장 전망치를 당초 1,700만 대에서 2,164만 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전년(320만 대) 대비 약 7배에 이르는 규모

※ 메이저 3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예상보다 빠른 가격 하락 등이 동인으로 작용

2) 수출 여건

▶ 한·페루 FTA,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

- 현재 컬러TV에 부과되는 9%의 관세가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

▶ 일본 대지진, 국내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긍정적 요인

- 현재 세계 평판TV 시장은 한·일 기업들간에 치열한 경쟁 전개

- 이 같은 상황에서 3.11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피해는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장기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조달 차질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엔화가 약세 반전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국내 업체의 세계 평판TV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평판TV	2008	2009	2010	LCD TV	2008	2009	2010
세계 시장	961.7	962.2	1,131.57	세계 시장	811.5	843.9	1,001.2
(증감률)	(15.6%)	(0.1%)	(17.6%)	(증감률)	(33.5%)	(32.1%)	(31.6%)
국내 업체	325.3	344.9	406.7	국내 업체	267.2	290.8	342.0
(증감률)	(35.3%)	(6.0%)	(17.9%)	(증감률)	(44.9%)	(8.8%)	(17.6%)
점유율	**33.8%**	**35.8%**	**35.9%**	**점유율**	**32.9%**	**34.5%**	**34.2%**
중국 업체	80.4	146.2	162.7	중국 업체	80.0	140.2	156.5
점유율	8.4%	15.2%	14.4%	점유율	8.9%	16.6%	15.6%
일본 업체	424.8	361.3	434.6	일본 업체	349.7	304.9	376.7
점유율	44.2%	37.5%	38.4%	점유율	43.1%	36.1%	37.6%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DisplaySearch, 2011.3.

3) 수출 동향

▶ 3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한 7.2억 달러로 집계

- 세계 시장 성장 둔화의 우려 속에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 확대, 중국, 중동 등으로의 수출 확대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LED TV 수출: ('11.1) 1,142만 달러, 55.2% 증가; (2) 1,857만 달러, 457% 증가; (3) 2,493.7만 달러, 504% 증가

※3D TV 수출: ('11.1) 492만 달러, 5,711% 증가; (2) 485만 달러, 2,260% 증가; (3) 898만 달러, 1,151% 증가

※스마트TV수출: ('11.1) 94만 달러, 2,113% 증가; (2) 12만 달러, 145% 증가; (3) 150만 달러, 1,851% 증가

- 제조업체들의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BMS 도입 등), LED TV의 대중화, 차세대 TV 수요 촉발을 위한 마케팅 등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최근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칼라TV (부분품 포함)	6.4 (47.5)	6.9 (44.1)	6.6 (67.9)	6.5 (58.6)	7.0 (55.8)	7.0 (57.6)	6.6 (22.1)	6.2 (26.9)	5.6 (21.8)	5.2 (3.0)	6.4 (19.0)	6.0 (16.1)	7.2 (11.4)
LCD TV	0.5 (13.6)	0.5 (36.4)	0.6 (14.7)	0.8 (46.6)	0.6 (24.9)	0.5 (46.4)	0.6 (9.8)	0.6 (△11.7)	0.6 (△7.0)	0.5 (△16.3)	0.5 (4.5)	0.5 (47.0)	0.6 (39.5)
PDP TV	0.2 (20.3)	0.3 (15.7)	0.3 (△12.3)	0.3 (8.3)	0.3 (8.5)	0.3 (14.0)	0.3 (7.5)	0.3 (43.3)	0.3 (17.6)	0.2 (5.6)	0.3 (31.0)	0.3 (56.0)	0.3 (28.1)
TV 부분품	5.7 (54.3)	6.0 (47.6)	5.7 (84.9)	5.5 (65.2)	6.1 (64.1)	6.1 (63.2)	5.7 (25.5)	5.3 (33.3)	4.8 (28.3)	4.5 (7.8)	5.6 (20.9)	5.2 (13.0)	6.2 (8.9)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97.8% 증가), 중동(21.7% 증가), 남미(13.4% 증가) 등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미국(△56.5%), 인도(△32.5%) 등 수출은 크게 감소

- 對중국 수출 확대가 성장 기조 유지의 견인차 역할

※중동 지역은 정세 불안의 우려 속에서도 수출 확대. 對중동 수출 비중은 8% 수준

- 반면,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 EU 등 선진 시장과 유럽 생산거점인 동유럽으로의 수출 하락세 지속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 태블릿 PC가 본격 성장하면서 PC 시장에 대한 잠식을 시작할 전망

-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는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의 영향력이 커지며 PC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내놨던 PC 시장(태블릿 제외) 전망치를 하향 수정
- Gartner의 '10.12월 태블릿 PC를 제외한 PC 출하량을 2011년 15.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1.3월 발표에서는 10.5% 성장으로 하향 전망
- 또한, '12년에는 올해대비 13.6% 증가한 PC 4억 4,060만대에 달해 당초 예측 14.8% 성장세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
- 이러한 PC 시장의 수요 감소는 넷북·노트북PC를 포함한 모바일 PC 시장의 수요 감소를 유발하여 PC 업체의 태블릿 PC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킬 전망
- 실제로, PC 업체인 HP와 Dell은 2011년부터 태블릿PC 사업을 본격화

※Dell은 2011년 2월 Google의 'Android' OS 탑재 제품인 'Streak 7'을 출시했으며 HP는 2010년 Palm 인수를 통해 확보한 자체 플랫폼 'webOS'를 탑재한 태블릿PC 'TouchPad'를 'CES 2011'에서 공개하고 오는 6월 공식 출시할 예정

글로벌 PC 시장 전망



< 2010.12월 전망 >



< 2011.3월 전망 >

자료 : Gartner, 2010.12/2011.03

▶ 2011년 급성장이 예상되는 태블릿 PC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업체들의 전략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업체 간 경쟁 본격화

- 애플의 아이패드2는 구형 제품보다 33% 얇고, 15%이상 가볍고, 듀얼코어 A5 프로세서를 장착해 속도가 향상된 것이 특징
- 삼성전자의 갤러시탭의 새로운 시리즈인 10.1인치, 8.9인치 2종은 아이패드2(8.8㎜)보다 두께가 8.6㎜로 얇아졌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허니콤과 1GHz 듀얼 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
- LG전자의 옵티머스패드(지슬레이트)는 두께가 12.8㎜, 8.9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안드로이드 OS 허니콤(3.0)과 Ndvia의 테크라2 듀얼코어 프로세스를 탑재
- 모토로라의 줌은 10.1인치 두께에 12.9㎜, 무게 730g으로 주요 경쟁 제품들과 비교해 무겁고 두꺼운 편이며, RIM의 '블랙베리 플레이북'은 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10.16㎜ 두께와 399g의 제품 무게를 자랑하며, 어도비 플래쉬 플레이어 10.1이 지원되는 웹 브라우징 등이 특징

주요 태블릿 PC 스펙 비교

구분	아이패드2	갤럭시탭2	모토로라 줌	옵티머스패드	블랙베리플레이북
디스플레이	9.7(1024×768)	10.1(1024×800) 8.9(1024×800)	10.1(1280×800)	8.9(1280×768)	7.0(1024×600)
운영체제	iOS 4.3	구글 안드로이드 허니콤 (3.0)	구글 안드로이드 허니콤 (3.0)	구글 안드로이드 허니콤 (3.0)	림 블랙베리 태블릿 OS
무게	613g	10.1=595g 8.9=470g	730g	630g	425g
두께	8.8㎜	8.6㎜	12.9㎜	12.8㎜	10.16㎜
프로세서	A5 듀얼코어 1GHz	듀얼코어 1GHz	Ndvia 테그라2 듀얼코어 1GHz	Ndvia 테그라2 듀얼코어 1GHz	듀얼코어 1GHz
배터리	6600mAh	6800/6000mAh	6500mAh	6400mAh	미공개
카메라	전면VGA급 /후면	전면200만 화소 /후면 300만 화소	전면200만 화소 /후면 500만 화소	전면200만 화소 /후면 500만 화소	전면300만 화소 /후면 500만 화소
가격	$499~	$499~/469~	$499~	미정	$499~
국내 출시 예정일	4월	6월/7월	상반기내	4월	미정

자료 : 한국경제, 2011.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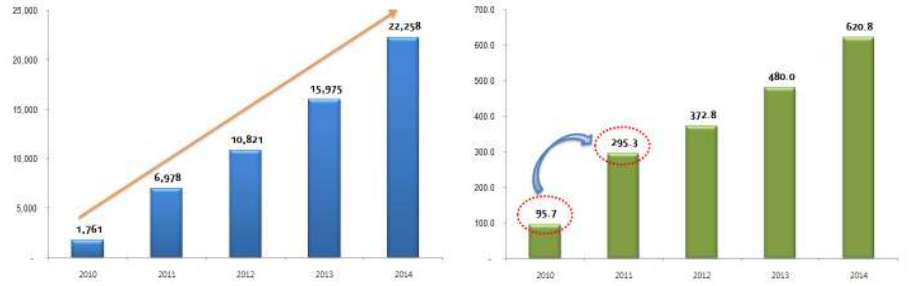
2) 수출 여건

▶ PC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중국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PC 산업은 태블릿 PC의 본격적인 개화와 맞물려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 Gartner('11.4월)는 올해 태블릿 PC 시장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약 500만대 늘린 6,978만대로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시장 규모도 대폭 상향된 3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이에,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수출 지역이 미국·일본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중소업체들도 태블릿 PC 수출에 가세할 것으로 기대

※ 중소업체인 엔스퍼트는 유럽의 IDAG(2012년까지 20만대의 태블릿 PC 수출)및 필리핀의 모빌리티 이노베이션(8,000만 달러 규모의 태블릿 PC 및 솔루션을 공급) 등과 태블릿 PC수출 계약을 체결('11.03)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 전망



< 출하량 (만대) > < 시장규모 (억 달러) >

자료 : Gartner, 2011.04

3) 수출 동향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신규 융합제품인 태블릿 PC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저장장치, 모니터 등 주변기기 부진 지속으로 6.7% 감소한 6.5억 달러 기록

- 신규 융합 제품인 태블릿 PC가 미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프린터(1.1억 달러, 20.8% 증가)도 월간 기준 1억 달러대 수출을 회복

- 반면, 해외 생산 확대와 단가하락으로 보조기억장치(1.0억 달러, △42.1%), 모니터(1.7억 달러, △29.3%) 수출은 감소세 지속

※ 태블릿 PC 수출 추이(억 달러) : ('10.10) 1.28→(11) 3.37→(12) 1.69→('11.1) 1.35→(2) 0.66→(3) 1.21

▶ (지역별) 상대적으로 주변기기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홍콩 포함, 2.1억 달러, △19.0%), EU(1.0억 달러, △10.0%)에 대한 수출은 부진하였으나, 미국(1.1억 달러, 19.7% 증가), 일본(0.8억 달러, 48.4% 증가)은 태블릿 PC 수출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한편, 정세가 불안한 對 중동/북아프리카 수출비중은 2~3% 수준이며, 3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6.7% 증가한 1,360만 달러를 기록

※ 對 중동/북아프리카 수출 추이(만 달러, %) : ('11.1) 94(△12.1) → (2) 96(△16.5) → (3) 136(46.7)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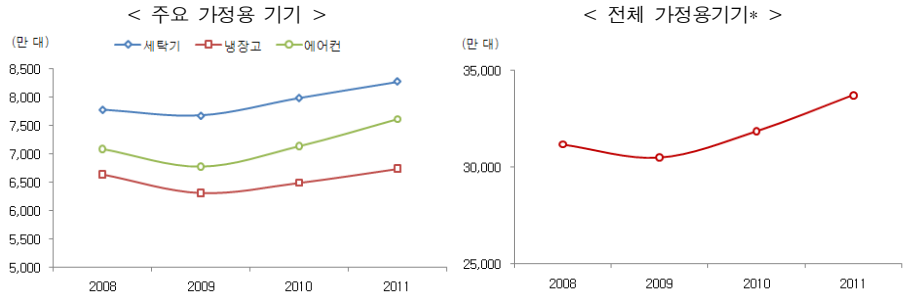
구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6.9 (27.8)	6.8 (20.6)	6.2 (14.9)	6.5 (17.9)	5.8 (△8.8)	5.3 (△5.7)	5.9 (△7.4)	7.3 (11.0)	7.8 (18.3)	6.5 (△1.2)	5.8 (△6.3)	4.9 (△18.2)	6.5 (△6.7)
컴퓨터	0.5 (72.8)	0.3 (△5.6)	0.5 (74.2)	0.8 (88.7)	0.6 (20.0)	0.3 (△15.6)	0.7 (118.1)	1.9 (203.4)	2.7 (342.7)	0.9 (65.1)	0.4 (48.4)	0.4 (△35.6)	1.1 (104.4)
주변기기 등	6.4 (25.0)	6.4 (22.5)	5.7 (11.7)	5.6 (11.7)	5.2 (△11.2)	5.0 (△5.0)	5.2 (△14.2)	5.5 (△8.7)	5.1 (△14.6)	5.6 (△7.2)	5.3 (△9.0)	4.5 (△16.5)	5.4 (△16.0)

6 가정용기기

1) 시장 환경 및 수출 여건

▶ 세계 생활가전 시장은 '10년 4.4%(3.2억대)에서 '11년 5.8% 성장(3.4억 대)할 것으로 예상(Gartner)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 전망



* 포함 데이터: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자료> : Gartner, 2010.10.

▶ 수익성 제고와 현지 완결형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해외 생산 기지 확충은 수출(통관기준) 확대의 제한 요인

▶ 일본 대지진, 국내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긍정적

- 3.11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피해는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장기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조달 차질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 엔화가 약세 반전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

▶ 한-페루 FTA, 장기적으로 가정용기기 수출 확대에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 국내 가정용 기기는 세탁기, 냉장고 등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FTA가 발표될 경우 장기적으로 對페루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

- 페루가 국내 세탁기와 냉장고에 부과하는 관세는 17%. FTA 발효 후 세탁기에 대한 관세 철폐까지 최대 4년, 냉장고는 최대 10년 소요

2) 수출 동향

▶ 3월 가정용기기 수출은 북미시장 수요 증가 등을 배경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한 4.5억 달러 수출

- 주요 가정용기기 가운데 냉장고(2.3억 달러, 11.2% 증가), 에어컨(0.5억 달러, 5% 증가)은 증가하였으나 세탁기(0.7억 달러, △7.8%)는 감소

▶ (지역별) 남미, 중국,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수출 확대와 미국 프리미엄 가전 수출 호조로 증가세 지속

- 미국(1.5억 달러, 25.8% 증가), 남미(4,570만 달러, 24.6% 증가), 중국(2,410만 달러, 23.9% 증가), 동유럽(3,770만 달러, 10.9% 증가), 아프리카(830만 달러, 44.1% 증가)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 호조세 시현

※ 한편, 중동 지역은 정세 불안의 우려 속에 수출 감소. 對중동 수출 비중은 13.6% 수준

※ 對중동 수출 추이(억 달러, %) : ('11.1) 1.3 (50.8) → (2) 0.7 (△4.0) → (3) 0.6 (△23.5)

주요 가정용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가정용기기	4.3 (45.2)	4.5 (30.3)	4.2 (36.5)	3.6 (6.4)	3.8 (18.4)	3.4 (13.5)	3.5 −(5.8)	4.1 (20.1)	3.7 (25.0)	3.2 (7.4)	4.2 (28.5)	3.4 (0.7)	4.5 (5.4)
냉장고	2.1 (75.9)	2.3 (41.0)	2.3 (46.0)	1.9 (7.4)	2.0 (27.4)	1.8 (22.0)	1.7 (△6.7)	2.2 (22.0)	2.0 (34.1)	1.6 (12.0)	2.3 (41.9)	1.7 (△1.3)	2.3 (11.2)
세탁기	0.7 (50.0)	0.7 (34.0)	0.5 (8.4)	0.5 (5.3)	0.5 (△7.4)	0.5 (△12.0)	0.5 (△25.0)	0.6 (1.7)	0.6 (△5.9)	0.5 (△20.2)	0.6 (△2.6)	0.6 (△4.1)	0.7 (△7.8)
에어컨	0.5 (4.1)	0.4 (9.2)	0.3 (53.3)	0.2 (△6.3)	0.2 (70.1)	0.1 (5.5)	0.1 (19.2)	0.2 (46.2)	0.2 (107.3)	0.1 (29.8)	0.3 (84.1)	0.4 (32.7)	0.5 (5.0)

7 수출 유망 품목 : SSD와 HDD

1) 시장 환경

▶ 세계 HDD 시장은 스마트 패드 출시 등 SSD(Solid State Drive) 채용 확대로 전년에 비해 급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

- '11년 세계 HDD 출하량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7억 1,900만개가 예상되며, 이후 '14년까지 8~9%대의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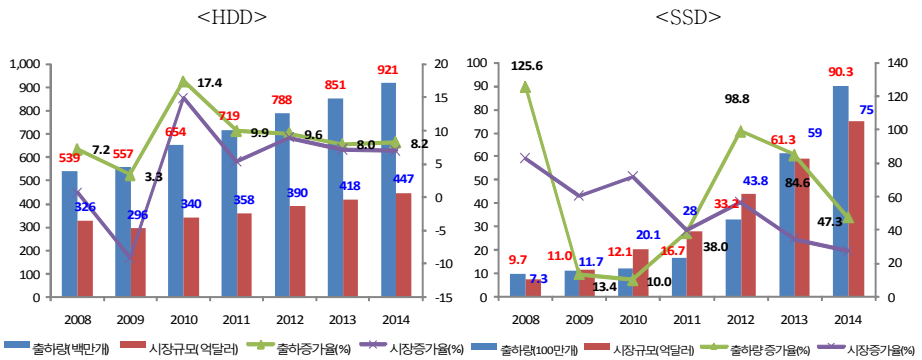
※ 매출액 기준으로는 '11년 전년대비 5.3% 증가한 약 358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예상

- HDD 시장은 이전보다는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Non-PC용 HDD의 꾸준한 수요, 기업의 대용량 스토리지 증가에 따른 HDD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이를 상쇄,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HDD 시장은 크게 PC용(52%, 10년 기준)과 Non-PC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Non-PC용으로 구분되는 외장형 HDD의 경우 파일 및 동영상 저장에 대한 수요 증가로 꾸준하게 증가

※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18개월에 2배씩 증가, '20년에 창출될 디지털 정보량은 '09년 대비 4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IDC)

글로벌 스토리지 시장 전망



자료 : IDC 2010

▶ 읽기·쓰기가 빠르고, 전력소비량이 적고, 충격에 강하다는 등의 장점을 앞세워 모바일 PC를 중심으로 SSD의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

- '11년 세계 SSD 출하량은 전년대비 38%나 늘어난 1,670만개가 예상되며, 향후 '14년까지 CAGR 50% 이상의 급성장이 기대

※ 매출액 기준으로는 '11년 전년대비 39.3% 증가한 약 28억 달러를 형성할 전망

▶ SSD의 채용 확대는 HDD 대비 가격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

- 최근 SSD의 채택이 증가하는 배경은 기술개발에 따른 용량확대와 가격하락이 주된 요인

- 이처럼 SSD의 가격은 향후에도 급격하게 떨어지겠지만 HDD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기엔 아직은 역부족이어서, 모바일 및 기업용 스토리지 등 틈새 시장 중심으로 확대가 예상

※ SSD 가격은 '13년에도 HDD에 비해 수배 비쌀 것으로 예상(아래 왼쪽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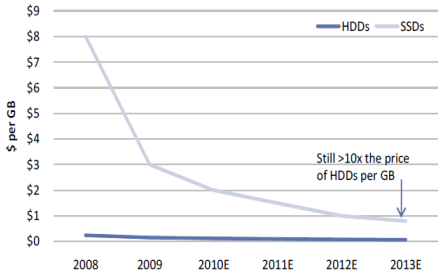
- '11년 전세계 HDD 출하량 중 약 44%를 소화하는 포터블 PC의 출하량은 약 2.3억 예상, 이 중 SSD는 0.9%가 채용되고 대수로는 약 630만대에 그칠 전망

※ 용도별 HDD 채용 점유율(대수 기준, Deutsche Bank 2010): 모바일 46%, 데스크탑 48%, 기업용 4%, 기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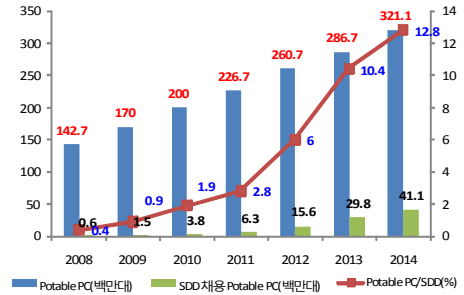
- 하지만, 향후 포터블 PC에의 SSD채용 비율은 급속하게 늘어나 '13년에는 12.8%, 1,280만대에 이를 전망

SSD 가격 및 채용 추이

<GB당 HDD vs SSD 가격>



<SSD 채용 비중>



자료 : GoldmanSachs(2010, 좌), Stifel Nicolaus(2011, 우)

2) 수출 여건

▶ 최근 스토리지 시장의 또 다른 이슈는 HDD 수요의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대형 M&A가 다시 주목

- 올 3월초 세계 1위의 HDD 제조사인 WD(Western Digital)는 3위인 HGST를 인수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세계 HDD 시장은 2강(WD, Seagate), 2중(도시바, 삼성)으로 재편

※ 이번에 WD에 인수된 히타치는 '03년 IBM을 흡수하였고, '09년 도시바는 후지쓰를, Seagate는 '05년 Maxtor(Maxtor는 '02년 Quantum 인수)를 인수하는 등 최근 HDD 업계는 대형 M&A가 활발하게 전개

※ 특히, WD는 모바일과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Seagate가 장악하고 있는 기업용 시장('09년 대수기준 63% 점유)에서는 점유율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해 이번 HGST의 인수를 통해 진입의 발판을 마련

※ M&A 움직임에 국내 업체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사

▶ 삼성전자는 '10년 출하대수 기준으로 9.2% 점유율로 세계 5위에 랭크

- WD(Western Digital)는 '10년 Seagate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 '10년 시장점유율(대수기준, digitimes): WD 31.4%, Seagate 29.6%, HGST 16.4%, 도시바/후지쓰 12.6%, 삼성 9.2%

3) 수출입 동향

▶ 2010년 HDD 수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4억 550만 달러에 그친 반면, SSD는 전년대비 무려 55.3%나 늘어난 3억 7,550만 달러를 기록

- '06년 약 21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HDD는 '10년 14억 달러로 CAGR 8% 감소한 반면, SSD는 200만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CAGR 184%의 급성장을 기록하여 대조를 나타냄
- ODD는 동기간 CAGR 27% 감소를 기록하여 수출품목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반면, 플래시 카드(USB 메모리 포함)는 동기간 CAGR 12% 증가하여 14.1억 달러로 스토리지 중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
- 한편, '10년 우리나라 전체 스토리지 수출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32.5억 달러를 기록
- 올해 1분기 기준 HDD는 전년동기 대비 약 48.1%나 감소한 2.15억 달러에 머무른 반면, 플래시 카드와 SSD는 각각 24.4%, 32.5% 증가한 4.1억 달러, 1.3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HDD 퇴조, SSD의 강세 기조가 이어짐

스토리지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대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HDD	수출액	2,085.7	2,330.4	1,795.3	1,365.6	1,405.5
	증가율	28.8	11.7	△23.0	△23.9	2.9
ODD	수출액	190.7	224.9	219.4	87.6	40.6
	증가율	△55.2	17.9	△2.4	△60.1	△53.7
SSD	수출액	2.0	38.3	207.8	241.9	375.5
	증가율	0.0	1,798.3	441.9	16.4	55.3
플래시 카드	수출액	788.2	989.7	958.7	1,029.4	1,409.5
	증가율	11.4	25.6	△3.1	7.4	36.9
기타		15.5	23.2	20.4	13.6	21.6
합계		3,082.2	3,606.4	3,201.5	2,738.0	3,252.6

▶ '10년 플래시 카드는 HDD를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스토리지 수출품목으로 올라섰고, SSD도 차세대 주력품목으로 부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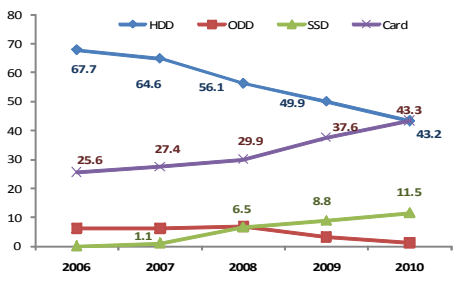
- HDD가 전체 스토리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67.7%에서 '10년 43.2%로 감소한 반면, 플래시 카드는 25.6%에서 43.2%로 증가
- SSD는 '06년 거의 제로에서 불과했으나, 4년 만인 '10년에는 11.5%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차세대 유망 수출품목으로 주목

▶ HDD 수지는 '07년 16.2억 달러 흑자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10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6.4억 달러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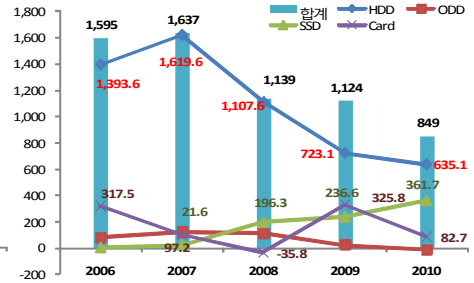
- 최대 수출품목으로 올라선 플래시카드의 흑자규모도 전년의 3.3억 달러에서 '10년에는 약 8,270만 달러로 감소
- 이에 반해, SSD는 '07년 약 2천만 달러의 흑자에서 '10년에는 3.6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 또 하나의 효자품목 탄생을 예고

스토리지별 수출 비중 및 수지 추이(백만 달러, %)

<수출 비중>



<수지 추이>



-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ODD는 '10년 적자로 전환
- 한편, '10년 우리나라 전체 스토리지 수지는 SSD가 분발하였으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HDD와 플래시카드의 흑자규모 감소, ODD의 적자 전환 등으로 '06년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대 이하인 8.5억 달러에 머뭄

- 올해 1분기 기준 HDD 흑자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86.6%나 감소한 2,900만 달러에 머물렀고, 플래시카드는 53.4% 늘어났으나 수출액에 비해 매우 낮은 4,600만 달러 흑자에 그침
- 반면에, 같은 기간 SSD의 수출액은 플래시 카드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HDD에 비해서도 작지만, 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차세대 효자품목으로의 위상을 굳건히 함

분기별/월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월, 동기)대비)

구분		2009				2010				2011			
		1Q	2Q	3Q	4Q	1Q	2Q	3Q	4Q	1월	2월	3월	1Q
수출액	HDD	297	314	376	380	414	370	321	301	82	70	63	215
	ODD	28	21	20	18	9	14	9	9	3	3	3	9
	SSD	36	48	74	84	99	83	88	102	49	46	36	131
	플래시카드	157	256	232	384	326	326	334	421	153	118	135	406
	합계	521	641	706	870	854	795	755	849	298	238	238	774
증가율	HDD	△47.6	△28.2	△23.2	25.1	39.6	17.9	△14.6	△20.8	△40.5	△44.9	△57.8	△48.1
	ODD	△54.8	△61.8	△65.2	△58.6	△67.2	△35.8	△57.2	△49.5	△15.7	△34.1	183.2	0.1
	SSD	△40.7	△9.8	50.4	88.3	173.5	73.9	18.3	21.7	25.2	38.4	36.0	32.5
	플래시카드	△58.5	△7.4	22.1	239.5	107.6	27.3	44.0	9.8	44.6	9.9	19.3	24.4
	합계	△51.4	△22.5	△10.9	70.9	63.8	23.9	7.0	△2.4	3.1	△13.2	△18.0	△9.3

▶ (지역별) '10년 HDD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4.0억 달러, 8.3% 증가)이며, 이어 독일(2.5억 달러, 3.0% 증가), 미국(1.2억 달러, 12.0% 증가), 홍콩(1.2억 달러, △31.6%), 대만(1.0억 달러, 25.9% 증가) 順이며, 5대 수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름

- 올 1분기 기준으로는 수출 상위 5개국 모두 감소한 가운데 독일이 5,085만 달러로 1위에 랭크

▶ '10년 말 기준 플래시카드의 최대 수출국은 대만(3.5억 달러, 48.1% 증가)이고, 이어 홍콩(3.1억 달러, 61.5% 증가), 중국(1.9억 달러, 177% 증가), 일본(1.6억 달러, 15.5% 증가), 미국(1.5억 달러, 4.0% 증가) 順이며, 5대 수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에 이름

- 올 1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도 1~3위 국가 모두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본 만이 감소

▶ '10년 말 기준 SSD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1.1억 달러, 89.3% 증가)이며, 이어 미국(0.92억 달러, 99.0% 증가), 일본(0.7억 달러, 47.6% 증가), 홍콩(0.4억 달러, 68.4% 증가), 폴란드(0.02억 달러, 50.3% 증가)로 상위 5위 국가 모두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수출 비중이 거의 90%에 이름

- 올 1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도의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증가한 반면, 일본은 감소하였고, 아일랜드와 체코가 새롭게 상위 5위권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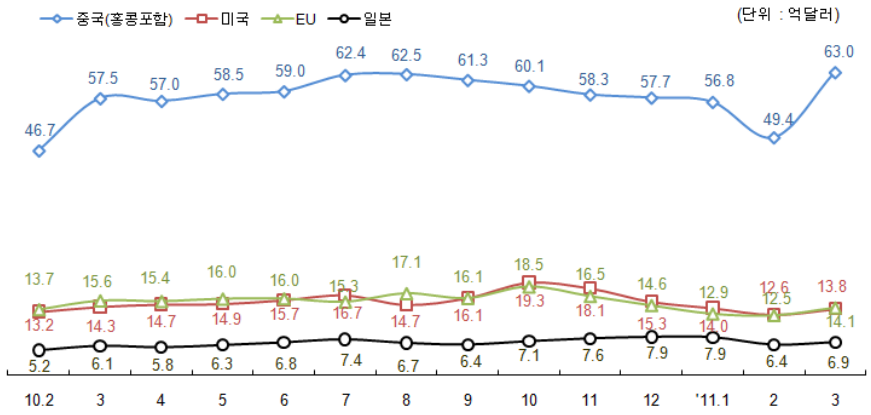
스토리지별 상위 수출 5위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HDD			SSD			플래시 카드		
		국가	수출액	증가율	국가	수출액	증가율	국가	수출액	증가율
'10년	1위	중국	395	8.3	중국	112	89.3	대만	348	48.0
	2위	독일	249	3.0	미국	93	99.0	홍콩	311	61.5
	3위	미국	121	12.0	일본	67	47.6	중국	190	177.3
	4위	홍콩	121	△31.6	홍콩	40	68.4	일본	156	15.5
	5위	대만	95	25.8	폴란드	20	50.3	미국	145	4.0
'11년 1Q	1위	독일	51	△27.7	중국	76	372	대만	109	28.5
	2위	중국	411	△61.3	미국	28	32.0	홍콩	99	12.6
	3위	미국	281	△23.5	아일랜드	8.8	8백만	중국	739	1,520
	4위	일본	151	△20.9	일본	6.4	△75.9	싱가포르	30	35.4
	5위	홍콩	12	△77.9	체코	5.9	664	일본	29	△31.7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1 중국(홍콩 포함) : 63.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9.4% 증가

▶ 對 중국 수출은 패널(19.5억 달러, 11.2% 증가), 반도체(24.4억 달러, 10.6% 증가), TV부분품(1.3억 달러, 111.5% 증가) 등 부(분)품 수출에 힘입어 월간 최대 실적 시현

※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 추이(%) : (03) 26.3→ (07) 35.8 → (10) 45.1 → ('11.1) 44.3→ (2) 44.2 → (3) 46.6

- 반면, 휴대폰(4.6억 달러, △23.2%)은 중국 현지 생산 거점 안정화로 수출이 감소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금액		57.5	57.0	58.5	59.0	62.4	62.5	61.3	60.1	58.3	57.7	56.8	49.4	63.0
(증감률)		(69.5)	(56.3)	(55.8)	(42.5)	(35.2)	(33.8)	(19.5)	(16.9)	(15.9)	(12.0)	(8.5)	(5.9)	(9.4)
	중국	45.8	45.3	45.9	45.8	48.5	49.2	47.2	47.4	45.6	44.0	43.1	38.4	47.4
		(67.3)	(56.0)	(55.9)	(41.5)	(34.4)	(34.7)	(16.9)	(19.1)	(17.0)	(6.6)	(2.5)	(5.3)	(3.6)
	홍콩	11.8	11.7	12.5	13.2	13.9	13.4	14.1	12.7	12.8	13.7	13.7	11.0	15.5
		(78.6)	(57.2)	(55.6)	(46.2)	(38.0)	(30.6)	(28.8)	(9.4)	(12.1)	(33.6)	(33.1)	(7.9)	(32.0)

2 미국 : 13.8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 감소

▶ 반도체(2.6억 달러, △10.1%), 패널(0.2억 달러, △78.2%)등 전자부품 수출은 부진과 휴대폰(5.7억 달러, △3.3%) 수출 부진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

- 특히, 패널 수출은 전년 동월 LCD 패널(특히, LED TV용) 수출(0.8억 달러, 76.6% 증가)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급감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금액	14.3	14.7	14.9	15.7	16.7	14.7	16.1	19.3	18.1	15.3	14.0	12.6	13.8
(증감률)	(14.9)	(3.2)	(2.7)	(12.2)	(15.0)	(12.9)	(21.2)	(42.2)	(33.0)	(24.2)	(15.5)	(△4.4)	(△3.3)

3 EU : 14.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9.5% 감소

▶ 경기 불안 지속으로 휴대폰(2.8억 달러, △6.9%), 패널(3.5억 달러, △20.0%), 반도체(2.7억 달러, △5.7%), TV부분품(1.5억 달러, △12.9%) 등 주요 품목 수출 부진으로 한 자릿수 감소세 지속

EU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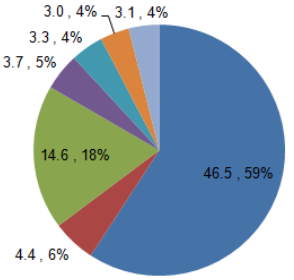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금액	15.6	15.4	16.0	16.0	15.3	17.1	16.1	18.5	16.5	14.6	12.9	12.5	14.1
(증감률)	(7.4)	(10.1)	(16.8)	(15.5)	(7.5)	(30.2)	(3.8)	(3.2)	(△2.7)	(△3.1)	(△2.3)	(△8.9)	(△9.5)

4 일본 : 6.9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4% 증가

▶ 일본 지진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휴대폰(1.1억 달러, 67.0% 증가, 특히, 스마트폰 수출 호조), 반도체(2.6억 달러, 10.8% 증가), 패널(0.6억 달러, 3.3% 증가)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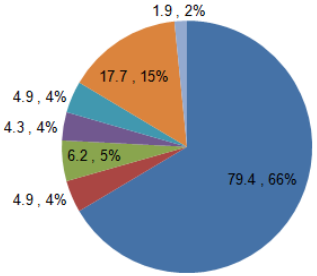
일본 IT수출입 현황(10년, 억 달러)

<수출>





<수입>



수출 상위 품목			수입 상위 품목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메모리반도체	18.6억 달러	23.8	디스플레이 패널	18.7억 달러	15.7
디스플레이 패널	10.3억 달러	13.1	의료정밀광학기기	17.7억 달러	14.8
시스템반도체	10.2억 달러	13.0	시스템반도체	17.6억 달러	14.7
휴대폰	8.0억 달러	10.2	접속부품	8.9억 달러	7.5
주변기기	3.1억 달러	4.0	수동부품	5.5억 달러	4.6

▶ '10년 일본 교역(수출+수입)의 약 65%를 전자부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에는 통신/방송기기(휴대폰), 수입에는 의료정밀광학기기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수출입 상위 1% 품목의 수출입 증감을 조사한 결과, 셋탑박스, 광자기매체 등의 수출이 감소되었나, 부품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급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일본 수출입 감소율 품목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률	3월 비중	품목	금액	증감률	3월 비중
1	셋탑박스	0.1	-41.5	0.4	휴대폰	0.2	-32.0	1.8
2	광자기 매체	0.1	-41.5	1.5	영상기기	0.2	-27.4	2.1
3	TV부분품	0.03	-38.3	0.5	수동부품	0.4	-12.2	4.1
4	유선통신기기	0.1	-34.3	1.9	프린터	0.2	-8.4	2.0
5	주변기기	0.2	-21.9	3.5	무선통신기기	0.4	-6.9	3.7
6	시스템반도체	0.7	-6.2	10.4	주변기기	0.3	-1.5	3.3

주) 일본 수출/수입 상위 1% (10년) 품목을 대상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금액	6.1	5.8	6.3	6.8	7.4	6.7	6.4	7.1	7.6	7.9	7.9	6.4	6.9
(증감률)	(45.6)	(4.1)	(16.7)	(13.8)	(23.7)	(12.4)	(△5.0)	(10.6)	(19.0)	(32.5)	(53.2)	(22.3)	(12.4)

5 기타 국가

▶ ASEAN(12.7억 달러, 14.1% 증가), 대양주(0.9억 달러, 6.5% 증가), 중동(4.2억 달러, 29.9% 증가) 수출이 증가한 반면,

- 아프리카(0.5억 달러, △11.9%), 중남미(7.5억 달러, △9.3%) 수출은 감소

3. 수입 및 수지 동향

▶ 3월 I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1.9% 증가한 72.2억 달러

○ 전자부품(39.3억 달러, 6.1% 증가), 휴대폰(6.0억 달러, 69.5% 증가) 등이 수입 증가를 견인

- 전자부품은 반도체(27.6억 달러, 8.2%), 패널(5.5억 달러, △3.4%), 접속부품(3.4억 달러, 3.5%)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 국내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외산 스마트폰의 대거 유입으로 휴대폰은 69.5%의 높은 수입 증가율 기록
- 유선통신기기는 최근 유선 네트워크 장비 수입 급증으로 전년동월 대비 166.4% 증가(2.8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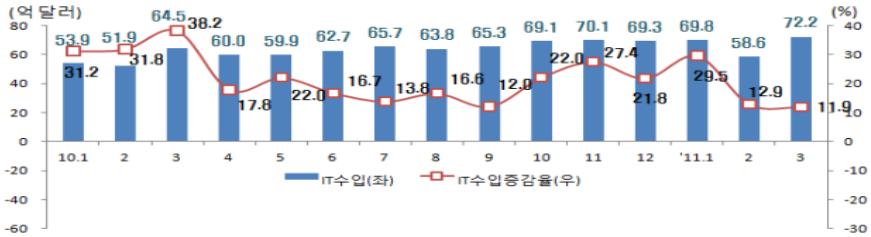
○ 중국(홍콩 포함, 26.3억 달러, 9.2% 증가), 일본(10.4억 달러, 6.9% 증가), 싱가포르(4.0억 달러, 5.5% 증가), 대만(8.4억 달러, 11.3% 증가) 등 주요 수입국 모두 감소

'11.3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39.3	(6.1)	8.7	(△1.9)	10.4	(16.2)	72.2	(11.9)
중국(홍콩 포함)	11.1	(△7.3)	5.8	(△1.3)	2.2	(29.9)	26.3	(9.2)
일본	6.8	(14.2)	0.4	(0.9)	2.3	(2.7)	10.4	(6.9)
미국	2.9	(△20.5)	0.4	(△26.8)	2.0	(3.0)	6.2	(△8.1)
대만	7.0	(20.3)	0.2	(9.0)	0.1	(98.7)	8.4	(11.3)

최근 IT 수입 추이



▶ IT 무역수지는 전체산업 흑자의 두 배인 62.8억 달러 흑자를 기록

IT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전체	17.3	37.8	40.3	67.9	50.0	12.1	44.1	63.4	25.9	40.9	28.4	24.6	31.0
IT산업	62.6	65.9	67.9	67.6	69.9	70.1	69.2	71.8	65.9	61.1	58.5	53.2	62.8

○ **(품목별)** 휴대폰(15.7억 달러), 반도체(17.2억 달러), 패널(21.5억 달러) 및 TV(7.0억 달러) 등이 흑자 기조를 유지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휴대폰	16.9	15.0	14.3	15.8	16.1	15.9	16.7	21.7	21.6	17.8	17.9	15.5	15.7
반도체	14.9	16.9	19.5	17.8	17.9	20.8	20.6	16.5	13.5	14.7	12.3	12.4	17.2
패 널	22.7	23.2	23.9	23.3	26.1	26.2	22.8	23.0	21.4	21.0	20.2	18.0	21.5
TV	6.2	6.8	6.4	6.4	6.9	6.8	6.4	6.1	5.5	5.1	6.1	5.8	7.0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은 3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EU는 8.2억 달러 흑자, 미국은 7.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중국(홍콩)	33.5	35.3	36.5	37.0	40.6	40.2	37.0	33.9	31.3	33.3	29.7	27.8	36.7
EU	10.9	11.4	11.8	12.0	10.9	12.8	11.9	13.9	11.6	9.6	8.1	8.2	8.2
미국	7.6	8.4	8.5	9.0	10.2	8.3	9.8	12.5	11.4	7.9	7.8	7.3	7.6
일본	△3.6	△3.9	△2.7	△4.0	△5.0	△3.9	△4.3	△2.8	△2.5	△2.8	△1.8	△2.6	△3.5

4. 2011년 3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월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1/4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4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상반기	1,647.8	526.2	-23.0	1,453.9	280.8	-27.2	193.9	245.4
3/4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4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하반기	1,987.5	683.3	8.8	1,777.0	339.4	-2.9	210.5	343.9
1월	211.3	69.1	-38.7	249.0	41.1	-36.6	-37.7	28.1
2월	254.0	76.7	-24.5	226.0	39.4	-32.2	28.0	37.4
3월	278.9	87.8	-26.8	239.2	46.7	-30.8	39.7	41.1
4월	303.3	94.5	-19.6	248.7	51.0	-25.0	54.5	43.6
5월	278.2	96.5	-17.2	234.1	49.1	-22.1	44.2	47.4
6월	322.1	101.5	-11.8	256.9	53.7	-16.9	65.2	47.8
7월	319.1	108.7	-10.5	276.8	57.7	-13.7	42.3	51.0
8월	289.5	105.9	-7.7	274.1	54.7	-13.0	15.4	51.2
9월	339.2	118.3	-2.5	297.6	58.3	-13.4	41.7	60.0
10월	339.7	120.3	0.6	304.0	56.7	-10.8	35.7	63.6
11월	339.9	117.2	36.4	295.3	55.0	17.9	44.6	62.2
12월	360.1	112.9	73.3	329.2	56.9	35.0	30.9	55.9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1/4	1,010.8	344.1	47.2	981.6	170.3	34.0	29.3	173.8
2/4	1,202.4	384.0	31.3	1,056.3	182.6	18.8	146.1	201.4
상반기	2,213.2	728.1	38.4	2,037.9	352.9	25.6	175.4	375.2
3/4	1,163.2	403.9	21.3	1,057.0	194.8	14.1	106.2	209.2
4/4	1,287.5	407.4	16.3	1,157.3	208.6	23.7	130.2	198.8
하반기	2,450.6	811.3	18.7	2,214.3	403.3	18.8	236.4	408.0
1월	307.4	110.3	59.5	315.4	53.9	31.2	-8.0	56.4
2월	330.4	106.7	39.0	310.4	51.9	31.8	20.0	54.8
3월	**373.1**	**127.2**	**44.8**	**355.8**	**64.5**	**38.2**	**17.3**	**62.6**
4월	393.0	125.9	33.3	355.2	60.0	17.8	37.8	65.9
5월	388.9	127.8	32.5	348.5	59.9	22.0	40.3	67.9
6월	420.5	130.2	28.3	352.5	62.7	16.7	67.9	67.6
7월	404.2	135.5	24.7	354.2	65.7	13.8	50.0	69.9
8월	364.8	133.9	26.4	352.7	63.8	16.6	12.1	70.1
9월	394.1	134.5	13.7	350.0	65.3	12.0	44.1	69.2
10월	433.4	141.0	17.2	370.0	69.1	22.0	63.4	71.8
11월	412.6	136.0	16.0	386.7	70.1	27.4	25.9	65.9
12월	441.5	130.4	15.5	400.6	69.3	21.8	40.9	61.1
2011년	1,318.1	375.1	9.0	1,234.1	200.5	17.8	84.0	174.5
1월	446.0	128.3	16.3	417.6	69.8	29.5	28.4	58.5
2월	386.1	111.8	4.8	361.5	58.6	12.9	24.6	53.2
3월	**486.0**	**135.0**	**6.2**	**455.0**	**72.2**	**11.9**	**31.0**	**62.8**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당월		1분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3,941**	**27.3**	**100.0**	**13,503**	**6.2**	**37,507**	**9.0**	**100.0**
정보통신기기	**138,756**	**26.4**	**90.1**	**11,938**	**4.6**	**33,383**	**7.2**	**89.0**
○전자부품	**91,302**	**45.6**	**59.3**	**7,813**	**5.0**	**21,518**	**8.5**	**57.4**
– 반도체	50,707	63.4	32.9	4,482	10.9	12,241	14.5	32.6
· 메모리반도체	28,470	79.4	18.5	2,351	2.9	6,420	4.0	17.1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27.3	21.9	2,702	−4.8	7,524	−1.4	20.1
– 전자관	279	−11.4	0.2	21	−31.5	57	−33.3	0.2
– 수동부품	1,599	39.0	1.0	143	14.5	406	16.5	1.1
– 접속부품	4,201.5	32.6	2.7	400	12.8	1,082	15.8	2.9
– 기타전자부품	79	27.2	0.1	8	30.8	23	23.5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10.4**	**5.0**	**645**	**−6.7**	**1,710**	**−10.2**	**4.6**
– 컴퓨터	1,009	114.5	0.7	109	104.4	188	36.6	0.5
– 주변기기	5,418	2.9	3.5	410	−20.7	1,185	−17.4	3.2
· HDD	1,405	2.9	0.9	63	−57.8	215	−48.1	0.6
· 프린터	1,142	20.2	0.7	110	20.8	300	10.7	0.8
· 모니터	2,307	−7.9	1.5	170	−29.3	469	−23.6	1.3
–컴퓨터부품	1,091	1.8	0.7	110	13.6	289	3.0	0.8
–SW및컨텐츠	191	10.4	0.1	16	−33.6	47	−5.4	0.1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10.3**	**18.0**	**2,371**	**4.6**	**7,113**	**6.4**	**19.0**
– 통신기기	27,526	−10.8	17.9	2,350	4.5	7,061	6.3	18.8
· 유선통신기기	1,328	26.2	0.9	86	−8.3	262	0.0	0.7
· 무선통신기기	26,198	−12.1	17.0	2,264	5.0	6,799	6.6	18.1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13.2	16.2	2,169	6.0	6,525	8.0	17.4
– 방송국용 기기*	247	111.1	0.2	20	18.5	51	20.8	0.1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30.4**	**6.8**	**970**	**8.4**	**2,612**	**10.4**	**7.0**
– 영상기기	8,025	39.9	5.2	756	10.9	2,073	15.0	5.5
·TV	7,452	42.6	4.8	715	11.4	1,947	15.2	5.2
LCD TV	649	15.6	0.4	64	39.5	162	28.3	0.4
TV 부분품	6,460	49.4	4.2	618	8.9	1,694	13.9	4.5
– 음향기기	1,082	7.7	0.7	102	−1.3	253	−5.6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6.2	0.9	111	1.6	286	−3.2	0.8
· 셋탑박스	762	12.2	0.5	56	−9.4	140	−14.2	0.4
○광자기매체	**1,487**	**34.8**	**1.0**	**139**	**16.7**	**430**	**25.6**	**1.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36.3**	**9.9**	**1,565**	**20.3**	**4,125**	**25.9**	**11.0**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51.6**	**2.6**	**410**	**34.0**	**1,069**	**45.4**	**2.8**
○가정용 기기	**4,510**	**21.2**	**2.9**	**454**	**5.4**	**1,220**	**10.9**	**3.3**
· 냉장고	2,318	29.9	1.5	232	11.2	631	16.3	1.7
· 세탁기	685	5.8	0.4	67	−7.8	182	−5.0	0.5
· 에어컨	286	11.9	0.2	51	5.0	121	28.5	0.3
· 전자레인지	106	−6.8	0.1	9	−15.1	23	−18.7	0.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6.9**	**0.3**	**51**	**36.9**	**120**	**30.5**	**0.3**
○전기 장비	**6,284**	**40.7**	**4.1**	**649**	**23.2**	**1,716**	**27.2**	**4.6**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28.3	2.7	415	13.3	1,063	13.6	2.8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당월		1분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75,619**	**21.9**	**100.0**	**7,219**	**11.9**	**20,054**	**17.8**	**100.0**
정보통신기기	**65,144**	**21.4**	**86.1**	**6,183**	**11.2**	**17,390**	**18.2**	**86.7**
○전자부품	**44,363**	**18.8**	**58.7**	**3,931**	**6.1**	**11,275**	**14.2**	**56.2**
– 반도체	31,137	17.0	41.2	2,764	8.2	8,052	15.8	40.1
· 메모리반도체	6,048	46.2	8.0	603	30.2	1,842	52.2	9.2
– 평판디스플레이	6,496	21.7	8.6	548	−3.4	1,552	7.1	7.7
– 전자관	118	−24.4	0.2	6	−42.4	22	−38.8	0.1
– 수동부품	1,707	28.3	2.3	156	6.2	430	13.7	2.1
– 접속부품	3,685	26.0	4.9	338	3.5	900	11.0	4.5
– 기타전자부품	132	52.1	0.2	15	55.4	40	47.6	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9,347**	**29.5**	**12.4**	**867**	**−1.9**	**2,435**	**9.0**	**12.1**
– 컴퓨터	3,078	57.4	4.1	295	0.3	858	18.8	4.3
– 주변기기	3,429	19.8	4.5	328	2.3	916	13.7	4.6
· HDD	770	19.9	1.0	64	−19.0	186	−6.6	0.9
· 프린터	1,066	23.8	1.4	118	22.6	311	26.0	1.5
· 모니터	1,002	17.2	1.3	84	−8.9	258	13.5	1.3
–컴퓨터부품	2,248	22.4	3.0	188	−12.8	522	−9.6	2.6
–SW및컨텐츠	592	5.5	0.8	57	5.2	139	7.6	0.7
○통신 및 방송기기	**6,892**	**25.2**	**9.1**	**1,017**	**88.6**	**2,574**	**72.8**	**12.8**
– 통신기기	6,756	25.0	8.9	1,006	91.6	2,547	74.5	12.7
· 유선통신기기	1,504	7.4	2.0	277	166.4	631	100.5	3.1
· 무선통신기기	5,252	31.2	6.9	730	73.2	1,916	67.3	9.6
휴대폰(부분품 포함)	4,279	37.2	5.7	599	69.5	1,612	76.0	8.0
– 방송국용 기기*	136	33.5	0.2	11	−24.0	26	−9.8	0.1
○영상 및 음향기기	**2,890**	**11.4**	**3.8**	**252**	**−12.6**	**707**	**−2.2**	**3.5**
– 영상기기	940	9.1	1.2	78	−23.5	248	−2.6	1.2
·TV	198	1.8	0.3	19	−9.5	59	4.6	0.3
LCD TV	17	27.8	0.0	5	262.4	18	403.6	0.1
TV 부분품	152	1.8	0.2	14	−18.8	40	−12.3	0.2
– 음향기기	1,368	8.7	1.8	123	3.6	328	3.6	1.6
– 기타 영상음향기기	581	23.1	0.8	50	−25.0	132	−13.9	0.7
· 셋탑박스	108	298.8	0.1	13	26.7	36	70.3	0.2
○광자기매체	**1,652**	**67.9**	**2.2**	**116**	**−21.6**	**399**	**3.9**	**2.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476**	**25.0**	**13.9**	**1,036**	**16.2**	**2,665**	**14.7**	**13.3**
○의료정밀광학기기	**7,101**	**31.5**	**9.4**	**721**	**16.0**	**1,815**	**15.2**	**9.0**
○가정용 기기	**899**	**19.6**	**1.2**	**87**	**26.8**	**219**	**21.1**	**1.1**
· 냉장고	83	19.5	0.1	6	−9.7	14	−8.5	0.1
· 세탁기	71	32.7	0.1	5	−21.0	15	−19.2	0.1
· 에어컨	32	14.2	0.0	5	91.3	14	115.5	0.1
· 전자레인지	17	110.6	0.0	3	53.3	6	73.6	0.0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36**	**−20.7**	**0.2**	**12**	**−20.7**	**28**	**−31.7**	**0.1**
○전기 장비	**2,339**	**13.8**	**3.1**	**216**	**16.3**	**603**	**14.6**	**3.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166	12.5	1.5	111	22.5	321	27.1	1.6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당월			1분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IT 전체	**153,941**	**75,619**	**78,322**	**13,503**	**7,219**	**6,284**	**17,453**
정보통신기기	**138,756**	**65,144**	**73,612**	**11,938**	**6,183**	**5,755**	**15,993**
○전자부품	**91,302**	**44,363**	**46,939**	**7,813**	**3,931**	**3,882**	**10,244**
- 반도체	50,707	31,137	19,570	4,482	2,764	1,719	4,190
· 메모리반도체	28,470	6,048	22,422	2,351	603	1,748	4,579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6,496	27,276	2,702	548	2,154	5,972
- 전자관	279	118	161	21	6	15	35
- 수동부품	1,599	1,707	-108	143	156	-13	-24
- 접속부품	4,202	3,685	517	400	338	61	182
- 기타전자부품	79	132	-53	8	15	-7	-17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9,347**	**-1,639**	**645**	**867**	**-222**	**-726**
- 컴퓨터	1,009	3,078	-2,069	109	295	-186	-670
- 주변기기	5,418	3,429	1,989	410	328	82	269
· HDD	1,405	770	635	63	64	-2	29
· 프린터	1,142	1,066	76	110	118	-8	-10
· 모니터	2,307	1,002	1,304	170	84	86	211
- 컴퓨터부품	1,091	2,248	-1,157	110	188	-78	-233
-SW및컨텐츠	191	592	-401	16	57	-41	-92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6,892**	**20,881**	**2,371**	**1,017**	**1,353**	**4,539**
- 통신기기	27,526	6,756	20,769	2,350	1,006	1,344	4,514
· 유선통신기기	1,328	1,504	-176	86	277	-190	-369
· 무선통신기기	26,198	5,252	20,945	2,264	730	1,534	4,883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4,279	20,610	2,169	599	1,571	4,912
- 방송국용 기기*	247	136	111	20	11	9	25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2,890**	**7,596**	**970**	**252**	**718**	**1,905**
- 영상기기	8,025	940	7,085	756	78	678	1,825
·TV	7,452	198	7,254	715	19	696	1,887
LCD TV	649	17	631	64	5	59	145
TV 부분품	6,460	152	6,308	618	14	604	1,653
- 음향기기	1,082	1,368	-286	102	123	-21	-7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581	798	111	50	61	154
· 셋탑박스	762	108	654	56	13	44	104
○광자기매체	**1,487**	**1,652**	**-165**	**139**	**116**	**23**	**3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10,476**	**4,710**	**1,565**	**1,036**	**529**	**1,460**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7,101**	**-3,155**	**410**	**721**	**-310**	**-746**
○가정용 기기	**4,510**	**899**	**3,611**	**454**	**87**	**367**	**1,001**
· 냉장고	2,318	83	2,235	232	6	226	617
· 세탁기	685	71	614	67	5	62	167
· 에어컨	286	32	254	51	5	46	107
· 전자레인지	106	17	89	9	3	6	17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136**	**309**	**51**	**12**	**39**	**92**
○전기 장비	**6,284**	**2,339**	**3,945**	**649**	**216**	**433**	**1,113**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1,166	2,917	415	111	304	742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3월 당월		1분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3,941**	**27.3**	**100.0**	**13,503**	**6.2**	**37,507**	**9.0**	**100.0**
○ 아시아	**99,239**	**35.2**	**64.5**	**9,108**	**11.6**	**24,990**	**12.6**	**66.6**
- 중 국	54,319	38.1	35.3	4,744	3.6	12,891	3.7	34.4
- 홍 콩	15,010	39.0	9.8	1,552	32.0	4,023	24.8	10.7
- 일 본	7,851	18.7	5.1	688	12.4	2,113	28.3	5.6
- ASEAN	13,809	29.4	9.0	1,272	14.1	3,613	17.0	9.6
· 싱가폴	5,643	20.2	3.7	544	23.3	1,441	12.7	3.8
· 인 니	952	8.6	0.6	95	-10.8	253	-0.7	0.7
· 말 련	2,415	23.1	1.6	149	-25.1	536	-1.5	1.4
· 태 국	1,136	14.5	0.7	107	16.3	297	12.4	0.8
- 대 만	6,420	45.7	4.2	662	25.2	1,833	28.5	4.9
- 인 도	1,537	16.4	1.0	151	14.9	434	31.5	1.2
○ 북미	**19,588**	**16.8**	**12.7**	**1,478**	**-3.0**	**4,280**	**1.9**	**11.4**
- 미 국	18,508	15.9	12.0	1,380	-3.3	4,043	2.1	10.8
- 캐나다	879	39.3	0.6	81	7.9	189	0.5	0.5
○ 유럽	**21,132**	**12.6**	**13.7**	**1,611**	**-7.7**	**4,483**	**-5.2**	**12.0**
- EU	18,787	10.3	12.2	1,410	-9.5	3,947	-7.0	10.5
· 영 국	1,496	-13.0	1.0	97	-9.3	306	-7.2	0.8
· 독 일	3,302	13.5	2.1	193	-43.1	556	-32.2	1.5
· 프랑스	931	-23.9	0.6	78	22.2	237	31.8	0.6
· 이탈리아	755	28.7	0.5	58	10.3	220	60.1	0.6
- 러시아	1,535	43.2	1.0	116	2.9	315	3.5	0.8
○ 중동	**3,876**	**28.6**	**2.5**	**419**	**29.9**	**1,189**	**38.2**	**3.2**
- 사우디	429	6.7	0.3	81	91.6	187	83.8	0.5
- UAE	1,269	45.4	0.8	136	46.4	446	77.8	1.2
○ 중남미	**8,420**	**13.3**	**5.5**	**745**	**-9.3**	**2,187**	**4.5**	**5.8**
- 브라질	2,429	21.0	1.6	217	-0.0	616	-0.7	1.6
- 멕시코	5,188	5.9	3.4	430	-14.8	1,344	6.7	3.6
- 칠 레	195	5.1	0.1	19	-15.3	49	-18.6	0.1
○ 대양주	**1,020**	**2.8**	**0.7**	**87**	**6.5**	**221**	**12.5**	**0.6**
- 호 주	944	4.2	0.6	80	5.0	201	9.2	0.5
○ 아프리카	**635**	**11.6**	**0.4**	**53**	**-11.9**	**152**	**9.1**	**0.4**
○ 브 릭 스	**59,821**	**36.8**	**38.9**	**5,228**	**3.8**	**14,256**	**4.2**	**38.0**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3월 당월		1분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75,619**	**21.9**	**100.0**	**7,219**	**11.9**	**20,054**	**17.8**	**100.0**
○ 아시아	**60,819**	**23.7**	**80.4**	**5,837**	**13.9**	**16,318**	**19.6**	**81.4**
- 중 국	26,311	32.4	34.8	2,565	9.9	7,281	22.7	36.3
- 홍 콩	950	32.9	1.3	63	-13.0	217	22.8	1.1
- 일 본	11,952	15.7	15.8	1,043	6.9	2,904	12.8	14.5
- ASEAN	11,858	4.3	15.7	1,013	2.5	3,097	6.7	15.4
· 싱가폴	5,255	-11.1	6.9	399	5.5	1,335	4.9	6.7
· 인 니	415	40.5	0.5	45	20.5	122	30.5	0.6
· 말 련	2,689	18.8	3.6	246	3.2	696	8.0	3.5
· 태 국	1,556	19.8	2.1	161	9.1	449	17.8	2.2
- 대 만	9,698	41.7	12.8	836	11.3	2,495	22.1	12.4
- 인 도	43	14.4	0.1	4	0.5	9	-12.9	0.0
○ 북미	**8,068**	**17.7**	**10.7**	**652**	**-8.0**	**1,864**	**2.7**	**9.3**
- 미 국	7,660	19.1	10.1	616	-8.1	1,770	3.8	8.8
- 캐나다	234	4.5	0.3	18	2.6	50	-11.0	0.2
○ 유럽	**5,733**	**14.0**	**7.6**	**628**	**22.3**	**1,601**	**20.2**	**8.0**
- EU	5,134	12.9	6.8	591	27.8	1,499	28.0	7.5
· 영 국	391	10.6	0.5	32	-6.8	87	3.8	0.4
· 독 일	2,341	20.8	3.1	221	-1.8	598	7.9	3.0
· 프랑스	660	-9.8	0.9	58	-7.3	171	5.1	0.9
· 이탈리아	260	15.7	0.3	22	-2.2	65	4.7	0.3
- 러시아	89	128.7	0.1	1	-60.4	4	-90.0	0.0
○ 중동	**434**	**-12.4**	**0.6**	**30**	**-40.8**	**89**	**-20.8**	**0.4**
- 사우디	1	449.8	0.0	0	-94.1	0	-75.0	0.0
- UAE	4	-37.1	0.0	0	34.0	1	69.3	0.0
○ 중남미	**441**	**21.5**	**0.6**	**58**	**59.3**	**144**	**52.4**	**0.7**
- 브라질	16	-6.8	0.0	2	3.3	3	-14.2	0.0
- 멕시코	420	22.1	0.6	56	60.9	139	53.3	0.7
- 칠 레	2	236.2	0.0	0	118.5	0	797.7	0.0
○ 대양주	**107**	**16.3**	**0.1**	**13**	**24.2**	**35**	**46.5**	**0.2**
- 호 주	95	15.7	0.1	12	25.7	33	52.4	0.2
○ 아프리카	**17**	**58.0**	**0.0**	**1**	**-90.7**	**2**	**-73.3**	**0.0**
○ 브 릭 스	**26,459**	**32.6**	**35.0**	**2,571**	**9.8**	**7,297**	**21.9**	**36.4**

주요 지역별 IT 수지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3월 당월			1분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20,949**	**62,020**	**58,929**	**13,503**	**7,219**	**6,284**	**17,453**
○ 아시아	**73,397**	**49,174**	**24,223**	**9,108**	**5,837**	**3,270**	**8,672**
- 중 국	39,344	19,868	19,476	4,744	2,565	2,179	5,610
- 홍 콩	10,802	715	10,087	1,552	63	1,489	3,806
- 일 본	6,617	10,333	-3,716	688	1,043	-354	-791
- ASEAN	10,673	11,369	-696	1,272	1,013	259	516
· 싱가폴	4,693	5,912	-1,219	544	399	145	106
· 인 니	876	295	581	95	45	50	130
· 말 련	1,963	2,263	-300	149	246	-97	-160
· 태 국	992	1,299	-306	107	161	-54	-153
- 대 만	4,407	6,845	-2,438	662	836	-174	-661
- 인 도	1,320	38	1,283	151	4	148	424
○ 북미	**16,764**	**6,855**	**9,909**	**1,478**	**652**	**825**	**2,416**
- 미 국	15,973	6,433	9,540	1,380	616	763	2,273
- 캐나다	631	224	407	81	18	62	139
○ 유럽	**18,759**	**5,029**	**13,730**	**1,611**	**628**	**983**	**2,881**
- EU	17,037	4,548	12,489	1,410	591	819	2,448
· 영 국	1,718	353	1,365	97	32	65	219
· 독 일	2,910	1,938	972	193	221	-28	-42
· 프랑스	1,224	731	492	78	58	20	66
· 이탈리아	587	225	362	58	22	35	155
- 러시아	1,071	39	1,033	116	1	115	312
○ 중동	**3,013**	**495**	**2,518**	**419**	**30**	**389**	**1,100**
- 사우디	402	0	402	81	0	81	186
- UAE	873	7	866	136	0	136	445
○ 중남미	**7,435**	**363**	**7,072**	**745**	**58**	**687**	**2,043**
- 브라질	2,008	17	1,991	217	2	215	613
- 멕시코	4,897	344	4,553	430	56	374	1,205
- 칠 레	185	0	185	19	0	19	49
○ 대양주	**992**	**92**	**900**	**87**	**13**	**74**	**186**
- 호 주	906	83	823	80	12	68	168
○ 아프리카	**569**	**11**	**558**	**53**	**1**	**53**	**150**
○ 브 릭 스	**43,744**	**19,962**	**23,782**	**5,228**	**2,571**	**2,657**	**6,959**